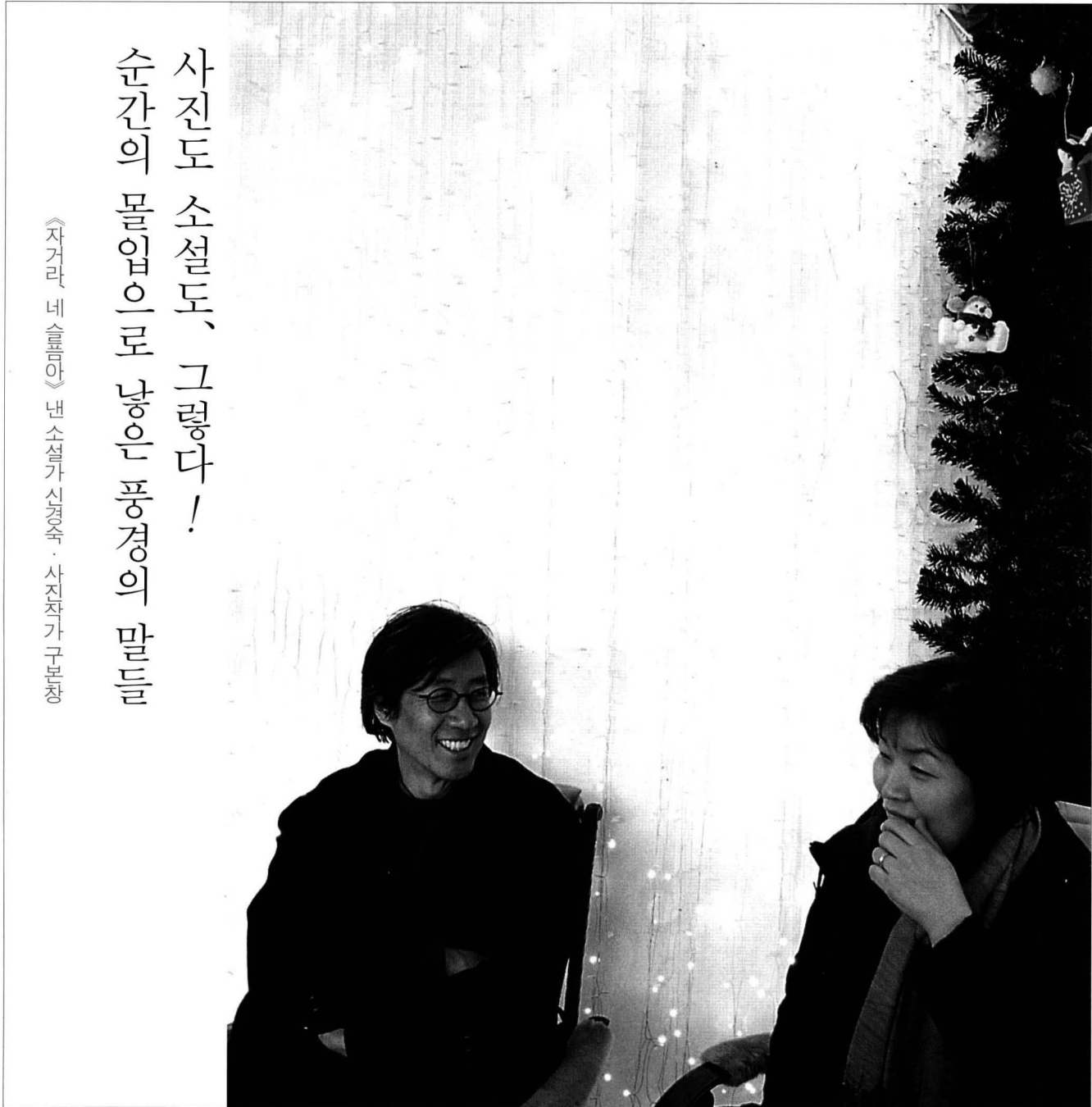


사진도 소설도, 그렇다!
순간의 몰입으로 낳은 풍경의 말들

《자거라, 네 슬픔아》 낸 소설가 신경숙 · 사진작가 구본창



> 빛의 투망에 찰나 포획된 사진 속에는 변명할 수 없는 사물과 사람의 침묵이 스며 있다. 그러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멈춘 서사를 잇는 것은, 단지 사진을 들여다보는 자의 몫만은 아니다. 순정하게 그 침묵을 들여다보는 자에게 사진은 은밀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도 한다. 비스듬히 기운 작업대 위에서 비스듬히 잠든 남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 혹은 지하 다방의 미스 차에게 실연당한 과거를 들려주기도 하며(〈저 남자를 방해해선 안 된다〉),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바다인지를 일러주기 위해 천지간 멈춘 비행기는 공항을 찾아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망하는 그녀의 쓸쓸한 눈빛을 들려주기도 한다(〈너는 거기 왜 가니?〉). 그러니 사진을 보다 발췌, 웃음을 흘리는 당신의 여인을 보더라도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사물과 사람을 안착시킨 시각형의 프레임일 뿐이다.

> 소설가 신경숙(41) 씨와 사진작가 구본창(51) 씨가 함께 펴 낸 《자거라, 네 슬픔아》는 침묵하고 있는 사진의 서사를 들려준다. 그럴듯한 사진과 그럴듯한 아포리즘으로 포장한 책이 아니다. 일상의 내밀한 비밀이 깃든 구본창 씨의 사진은 자분자분 신경숙 씨에게 말을 걸어와 서사를 잊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 없는 '즐거운 고통' 을 안겨주었다. 지난 석 달 동안 사진과 글을 통해 서로를 면밀히 훑쳐본 그들이 오늘 만났다. 너무 많은 것을 엿보지는 않았을까 조바심하며, 서로간 공유하고 있는 허약한 추억에 살을 더하며, 긴 시간 정지된 그들의 서사를 조심스레 이어갔다.

〈구본창〉 신 선생의 글을 좋아했던 터라 신 선생이 부탁한다면 기꺼이 제 사진을 내 놓겠다 생각했지요.(웃음) 사진은 대상들을 디테일하게 정치定置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진을 보고 쓴 신 선생의 디테일한 글을 읽으며 사진을 찍던 그때의 제 정서를 들듯 느껴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진을 건넬 때마다 또 어떤 글이 나올까 기대되었죠.

〈신경숙〉 글을 쓰는 월요일 아침마다 즐거웠습니다. 구본창 선생의 사진을 한참 보고 있으면 잊고 있던 많은 일들이 떠올랐어요. 지금껏 글을 쓰고 있지만, 글이 즐겁게 써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고통스럽죠.(웃음) 글을 쓸 때 잠시 처연해지기도 했지만 분명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구본창 선생의 사진과 만나지 않았다면 책 속의 많은 이야기들은 뒷날에 소설이 되었을 거예요.

누군가 막 떠난, 흐트러진 이부자리가 담긴 책 표지의 사진을 가리키며 신경숙 씨는 다시 기억을 더듬는다. 마음껏 울고 싶어 제주도까지 흘러온 그 여자를 잊고 있었다고. 낯선 여자의 눈과 목 선, 그리고 손을 보며 이 사람을 가까이 두어도 될까 조심스러웠다고. 말없이 여자 가 떠난, 그때의 빈 자리와 사진은 몹시 닮아 있었던 것이다.

〈신경숙〉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어 영원 불멸화시키는 사진은 단편소설과 다르지 않아요. 한 순간 한 장면을 위해 혼을 다하는 사진처럼, 단편소설을 쓸 때도 순간의 몰입이 중요합니다. 길게 시간을 끌어봤자 한 줄도 더 쓸 수 없어요. 이야기를 품고 있는 구본창 선생님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런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구본창〉 가방이 놓여 있다면, 방금 누군가가 놓고 갔거나 혹은 집어 갈 듯한, 살아 있는 사진입니다. 이야기를 품고 있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신 선생이 사진을 통해 글을 얻는다면, 저는 글을 통해 사진을 얻기도 합니다. 글 속에 살아 있는 인상적인 단어를 만날 때, 포커스를 맞출 대상이 쉽게 연상되지요. 신 선생이 가려 쓴 단어들은 메모해 두고 싶을 만큼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사진과 단편소설이 닮은꼴이라는 말에도 물론 공감합니다.

책 속에서 사진과 글은 조화를 이루지만, 구본창 씨와 신경숙 씨는 작업을 위해 함께 걸음을 옮겨본 적은 없다. 완전한 타자였던 것. 책 속의 사진은 오래전 부터 최근까지 구본창 씨가 홀로 찍은 것이었고, 사진을 건네는 순간에도 그 배경을 귀찮게 주지 않았다. 구

본창 씨의 사진을 보며 누군가가 몸을 빼낸 이불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차려진 밥상 앞에서조차 먹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신경숙 씨가 짐작했다면, 신경숙 씨의 글을 읽으며 그녀의 고향 정음이 어떤 곳인지, 어느 친구의 집에서 고단한 몸을 위안받는지, 아름다움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본창 씨는 짐작했다. 그들이 한 권의 책을 앞에 두고 할말이 많은 것은 그 짐작이 사실에 닿아 있어서다.

〈구본창〉 신문에 실린 신 선생의 얼굴을 본 때문인지 낯선 느낌이 없었어요. 제작년 현대문학 신년회 때 신 선생을 처음 보았는데 반가워서 얼른 “신경숙 씨죠?” 하고 말을 건넸었지요.

〈신경숙〉 저 역시 그때까지 선생님 얼굴을 알지 못했어요.〈현대문학〉 표지에 실린 작품은 관심을 갖고 보았었죠. 신년회 때, 몸이 바짝 마른 누군가 저쪽에서 있었는데 참 인상이 좋다, 생각하며 유심히 보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줄은 정말 몰랐네요. 연세가 많으신 줄 알았다면 그때 유심히 안 보았을 거예요. (웃음)

〈구본창〉 신 선생과 인연이 이리 깊어질 줄도 몰랐어요. 현대문학 측에서 사진집을 내보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보통의 것과 다르지 않은 사진집을 생각하고 있었죠. 신 선생과 작업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지요.

〈신경숙〉 저는 구본창 선생의 사진을 먼저 받았더랬어요. 사진들을 보고 글을 써보면 좋지 않겠냐고 물어왔지요. 마침 문화일보에서 연재를 해보자고 연락이 왔는데, 사진을 갖고 연재를 하면 좋겠다 싶어 흔쾌히 승낙했어요.

이번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은 그들의 맨 얼굴을 보여주기도 한다. 연꽃을 든 손이 담긴 〈이 꽃을 어머니에게〉에서는 아름다움에 인색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한 벌 수의를 내보이며 “아름답지야” 하고 말하는 어머니를, 조금 젖혀진 커튼 사이로 고양이의 뒷모습이 담긴 〈밭톱일랑 숨기고〉에서는 ‘루미’ 라는 고양이와 이별할 수 밖에 없었던 신경숙 씨의 일상을 엿볼 수 있다. 구본창 씨의 일상이 생략된 것도 아니다. 〈손〉에서 비행기 기내에서 찍은 가지런한 누군가의 오른손은 그의 것이며,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에서 잘 차려진 한 끼 식사 역시 그의 것이었다. 신경숙 씨는 그것이 구본창 씨 것임을 눈치 채고는 “간밤 저기에서 민박을 한 그이는 지금 바깥에서 산보를 하고 있거나 세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아닌가?”



저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인가”하고 능청스레 쓰고 있기도 하다.

〈구본창〉 전시를 통해 보여준 사진은 이런 류의 사진이 아니었죠. 책이 나오고 나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감 있는 일상의 모습들이 보기에 좋았던가 봐요. 책에 담긴 사진들에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이따금 이런 사진들을 보다 전시에 쓰일 더 큰 테마를 얻기도 하죠. 아마 대개가 처음 선보이는 작품일 겁니다. 이 사진들로 언젠가는 뭘 해야지 싶었는데, 뒤늦게 신 선생을 만난 것이죠.

〈신경숙〉 어떤 분들은 책에 실린 글들이 장편掌篇 같다는 말을 해요. 경험할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아 글이 막힐 때면 화집이나 사진집을 종종 들여다봐요. 매혹당하는 장면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림이거나 사진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구석진 곳의 뭔가를 발견했을 때, 글로 옮겨보고 싶은 마음이 움튼답니다. 구본창 선생의 스튜디오에 두 번 정도 갔었는데, 작업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 저와 만나질 것 같은 사진들을 세심하게 골랐죠. 너무 좋은 사진들이 많았는데 모두 담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그들은 긴 시간 이어가지 못한 작업을 아쉬워했다. 연재를 마치고 책으로 묶는 과정 중에 신경숙 씨는 지나칠 수 없었던 사진들을 갖

고 몇 꼭지의 글을 더 쓰기도 했다. 구본창 씨 역시 그때마다 흔쾌히 사진을 건네주었지만,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이었다.

〈구본창〉 사진과 문학이 만난 새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래도 신문연재는 수월치 않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어요. 지면으로 보는 느낌이 달랐거든요. 컬러사진이 흑백으로 편집되기도 했고, 의도한 구도가 편집되기도 했어요. 글과 사진 모두 좋았는데, 그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상품광고가 함께 게재될 때는 속상했지요. 3개월이 가장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신경숙〉 제 소설이 다 나와 버리니 이거 안 되겠구나 했던 마음이 컸어요. (웃음) 나는 소설가니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지요. 사진을 보면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걸 소설로 써야 되는 것이라 따로 빼놓을 수도 없고… 그 순간의 몰입이 전부거든요. 여기에 집중해 다 써버리고 나면 나는 가난뱅이가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웃음)

웃자락 스치는 일이 인연이고 보면, 각별한 인연이라고 해도 마찰은 생기는 법. 이번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신경숙 씨는 〈물이 나오지 않는 왕궁에서〉에 담긴 사진을 표지사진으로 택했다. “좋지

요?”라고 물었을 때 구본창 씨는 고개를 저었다. “표지사진으로 이국의 모습은 택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구본창 씨의 대답이었다. 1997년 인도 하티푸르 시크리성에서 찍은 <물이 나오지 않는 왕궁에서>에 담긴 사진은 지금 신경숙 씨가 갖고 있다. 아쉬움을 달래겠다는 듯 구본창 씨로부터 기어코 얻어낸 것이다.

〈신경숙〉 왕궁을 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 지어만 놓고 버려두게 되었다는군요. 그 결핍이 가난한 왕자의 달콤한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지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자의 왕궁이지 누구의 왕궁도 아니잖아요. 잠자는 모습이 참 묘해요. 저 역시 달콤한 낮잠을 좋아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걸, 좋은 걸 보면 또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저기에서 한숨 자고 싶다. 라고.

〈구본창〉 신 선생이 그렇게 좋아하시니 주인이 따로 있구나 싶었지요. 개인적으로 <서레 이모>에 담긴 사진을 가장 좋아합니다. 경기도 양수리 근교에서 찍은 것인데, 가랑비가 스산하게 오는 날이라 분위기가 더했죠. 우산 속의 여자는 몸이 불편한 여자였어요. 배경으로 수양버들 한 그루가 놓여 있는데, 우악스런 플라타너스가 서 있었다면 느낌이 살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거라, 네 슬픔아》는 양장본으로 제작되어 독자들에게 새롭게 선을 보인다. 표지는 정직하게 사진만 담아 깨끗한 느낌을 살렸으며, 사진 색감이 잘 살아날 모조지로 내지도 바꾸었다. 그들은 그래도 뭔가 미진함이 남았는지, 책을 펼쳐 각 단락의 제목색이 브라운이나 세피아가 좋지 않을까, 저자이름은 블루보다는 썩색이 낫지 않을까 욕심을 숨기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좋은 생각”이라는 기자의 동감에 구본창 씨는 “지금 이미 인쇄 들어간 상태인걸요”라며 웃음을 지었는데, “우리 지금 인쇄소로 가서 작업을 멈추라 할까요?”라는 신경숙 씨의 농담이 무척이나 유쾌했다.

〈구본창〉 신 선생을 잘 알게 되었으니, 이제 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부탁을 드릴 겁니다. <출판저널>에서 좋은 기획을 갖춰 불러준다면 신선생과 가까이 응하겠습니다. (웃음) 지난 연말 파리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찍은 사진들로 전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언제가 될지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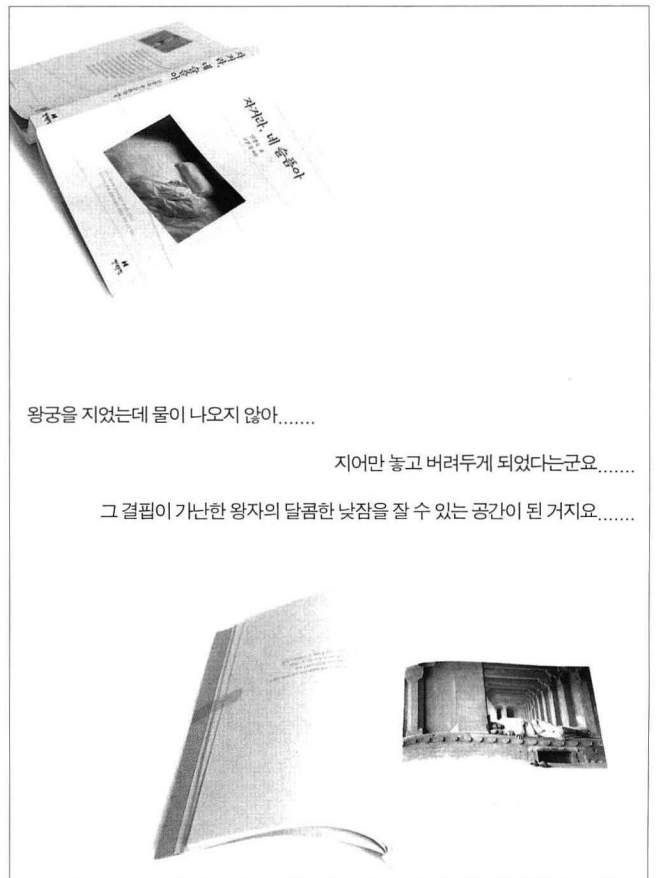
〈신경숙〉 장편소설을 준비중입니다. 전작작업이니만큼 겨우내 봄내 부지런히 써야겠죠. 저 역시 기회가 닿는다면 구본창 선

생님과 다시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편 이번 책에는 서문이 없다. 구본창 씨는 “파리에 있어서”, 신경숙 씨는 “출판사에서 쓰라는 말이 없었서”라며 서문 없는 책의 이유를 밝히는데, 그러나 이 책에 있어 서문만큼 필요 없는 것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다. 책에 담긴 사진과 글을 보며 그들이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대체 기내에서 찍은 손은 구본창 씨의 것인지, 신경숙 씨의 것인지, 책 한 권의 서사를 잇는 기쁨을 독자 역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 당신들의 사진첩 속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여다보라. 순정하게 그 침묵을 들여다보는 당신에게 사진은 은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것이다.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면 《자거라, 네 슬픔아》를 앞에 두고 차분하게 읽어보기를. 사진을 찍던 그때 당신의 마음이 황폐하지는 않았는지, 사진을 보는 마음이 어디까지 깊어져야 하는지 구본창 씨와 신경숙 씨는 친절히 알려줄 것이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왕궁을 지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

지어만 놓고 버려두게 되었다는군요.....

그 결핍이 가난한 왕자의 달콤한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지요.....